

## 2025학년도 1학기 문헌정보학 BK21 스터디 6주차 발제

발제자: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송민건

### 1. 발제 논문

김영석. (2025). 공공도서관 폐기도서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6(1), 1-26.

### 2. 발제 논문 초록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폐기도서 활용의 저해요인을 밝혀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단순히 재활용 폐지로 처리되고 있는 폐기도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문헌조사 및 현장 사례조사,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다.

인터뷰 방법은 대면이 10명,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이 12명이다.

전국 7개 광역시도의 18개 시군구에서 19개 공공도서관을 조사했는데, 교육청과 지자체 소속이 각각 6개관과 13개관이다.

22명의 사서를 인터뷰하였는데, 사서의 직위는 관장 6명, 팀장급 12명 그리고 기타 4명이다.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폐기도서 활용에 대한 인식과 폐기도서 무료배부와 공직선거법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조사하였다.

폐기도서 활용의 저해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요인은 **공직선거법**으로 밝혀졌다.

이에 본 연구는 폐기도서를 무료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조례 및 국가 법령 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기도서의 폐기 원인에 따라 각기 다른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 3. 연구 방법

#### 1) 문헌 조사

폐기도서의 개념 정의, 이론적 토대 마련, 선행연구 분석, 국내외 활용 사례와 규정 등 파악

#### 2) 사례 조사

국내외 공공도서관 폐기도서 활용 현황 파악

국내 19곳, 미국 2곳, 캐나다 1곳, 영국 2곳, 독일 1곳, 일본 1곳의 총 6개국 26관 사례

국내 19관 중 6관은 직접 현장 방문, 13관은 사서와의 전화 면담

해외 5개국 7관 중 5관은 인터넷을 통해, 1관은 이메일, 1관은 직접 방문

#### 3) 담당 사서 인터뷰

〈표 2〉 사례조사 지역 및 도서관 수, 인터뷰 방법, 참여자 직위 및 수

사례조사 지역 및 도서관 수 인터뷰 참여자 수	인터뷰 참여자 직위 현황	인터뷰 방법 및 도서관 수
서울시: 9개관, 12명	관장: 6명	대면: 7개관 10명
경기도: 2개관, 4명	팀장(과장, 실장 포함): 12명	
강원도: 1개관, 1명		
전라도: 2개관, 2명	기타(주무관 등): 4명	전화: 12개관 12명
경상도: 2개관, 2명		
제주도: 1개관, 1명		
7개 광역시도(18개 시군구), 19개관(교육청 6개관, 지자체 13개관), 22명	총 22명	총 19개관 22명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였고, 일부 내용에서 구조화된 질문을 이용하여 15~40분간 인터뷰 수행  
 질문의 내용은 연 폐기 횟수, 폐기 절차, 폐기도서 처리 방법, 폐기도서 처리시 가장 어려운 점 등으로 구성  
 사서들의 공공도서관의 폐기도서 활용에 대한 인식과 폐기도서 무료배부와 공직선거법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

### 4. 국내외 공공도서관의 폐기도서 활용 사례

#### 1) 해외 사례

미국 노스다코다 주립도서관 - 주로 온라인 중고서점에 판매

워딩톤 도서관 - 도서관 친구들을 통해 연중 수시로 도서관 로비에서 폐기도서와 기증도서를 영가에 판매

캐나다 노스밴쿠버 시립도서관 - 장서개발정책에 폐기자료의 처리 중 하나로 판매에 대해 명시

독일 드레스덴 도서관 - 이용자에게 영가로 판매 / 학교 등에 기증 / 재활용 폐지로 처리의 3가지

일본 후쿠오카시 하카타도서관 - 책 뒤표지에 제적도서 스티커를 붙이고 라벨을 제거한 뒤 도서관 출입게이트  
 옆의 플라스틱 상자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배부

#### 2) 국내 사례

##### (1) 전라남도교육청

무안도서관과 목포도서관에서는 폐기도서를 지역의 기관 및 단체에 기증하고 남은 도서를 개인에게 무료로 배부함

도서관에서 무료 나눔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복지센터 등에 기증하고 주인에게 책을 무상 배부함

해당 행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전라남도교육청 차원에서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

전라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 ① 도서관은 지식 자원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
  - 2. 폐기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 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2) 용인시

용인 북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제적 도서 5천여 권을 현금 1천 원에 판매

이러한 제적 도서의 유상 판매 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가 아닌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도서관자료 제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를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제적할 수 있다.

(각 조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제적한 도서관자료를 개인에게 중고서적 거래가격을 참고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3) 의왕시

기존에는 공립작은도서관에서만 폐기도서를 무상 배부하였고, 공공도서관에서는 정기간행물 과월호만 개인에게 무상 배부하였으나, 2025년 처음으로 공공도서관의 폐기도서를 개인에게 무상 배부할 계획

다른 지역에서 도서관의 자료 폐기 또는 제적에 한정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것과 다르게 지자체의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 폐기도서의 무상 배포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함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4) 평택시

평택시는 폐기도서를 개인에게는 무상 배부를 하지 않고 지역의 기관 및 단체에 기증 수증한 도서의 경우, 기증자의 동의를 구해 축제 등에서 개인에게 무상 배부를 수행함  
폐기도서를 개인에게 무상 배부한 사례는 없으나, 조례를 통해 법적 근거는 마련해두고 있음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제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④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5. 폐기도서 활용의 저해요인과 폐기도서 활용에 대한 사서의 인식 및 이해**

**1) 폐기도서 활용의 저해요인**

첫째, 공직선거법 위반

둘째, 무료배부된 폐기도서가 재유통되어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업무를 잘못 수행한 것으로 인식

셋째, 폐기도서 처리 및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없음

넷째, 지역 서점, 출판계, 작가가 도서관의 폐기도서 판매를 문제 제기

다섯째, 폐기도서 중에는 훼손, 오손 도서가 많아 근본적으로 활용이 불가

여섯째, 폐기도서 중에는 내용의 오류, 시대에 뒤떨어진 정보를 담고 있는 도서가 많아 정보자료로서 가치가 낮음

일곱째, 폐기도서의 배부처가 없음. 최근 들어 기관에서 폐기도서를 받으려 하지 않음

여덟째, 폐기도서 활용을 위해 사서의 업무가 추가되거나 과중 될 수 있음

2) 폐기도서 활용에 대한 사서의 인식 및 이해

〈표 7〉 사서의 폐기도서 활용의 필요성 대한 인식(N=22)

구 분	매우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균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폐기도서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0(0.0)	4(18.2)	4(18.2)	9(40.9)	5(22.7)	3.68

연구 참여자 22명 중 14명은 폐기도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점 척도의 전체 평균은 3.68로 매우 높지는 않음

3) 폐기도서 무상 배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서의 인식 및 이해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도서관이 각종 행사에서 정기간행물의 과월호나 폐기도서를 지역주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될 거라고 답변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 또는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시립·구립도서관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과월도서를 제공하는 것은 시기에 상관없이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 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 2. 6.)

법령(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폐기도서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 11. 7.)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이 지역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폐기도서, 간행물 과월호, 또는 수증도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선거기간뿐만 아니라 시기에 관계 없이 상시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

[공직선거법 제 113조](#)와 [제 114조](#) 항목 참조

〈표 9〉 폐기도서 무료배부와 공직선거법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N=22)

구 분	매우 잘 모름	잘 모름	보통이다	잘 앎	매우 잘 앎	평균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이해	1(4.6)	3(13.6)	3(13.6)	12(54.6)	3(13.6)	3.59
공직선거법 위반 아님 이해	5(22.7)	6(27.3)	5(22.7)	5(22.7)	1(4.6)	2.59

인터뷰에 응답한 사서들은 대체로 폐기도서의 무상 배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평균적으로 이해가 높지는 않음

폐기도서의 무상 배부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해가 낮은 편임

6. 공공도서관 폐기도서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1) 조례나 법령의 제정

공공도서관이 폐기도서를 활용할 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된다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도서관이 폐기도서, 정기간행물 과월호, 수증도서를 지역주민에게 무료배부하는 행위를 상시적인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음

즉, 공공도서관이 공직선거법에 구애되지 않으면서 폐기도서를 지역주민에게 무료배부 및 유료판매 그리고 지역의 기관 및 단체에 기증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함**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폐기도서의 활용을 위한 조례를 신설하거나, 기존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음

**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경우, 과년도 비도서자료, DVD 영상물, 잡지만을 배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도서 자료를 포함하는 개정이 필요함

더 나아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폐기자료의 활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번거롭고 행정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의 도서관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자료의 양에 대한 지침에 처리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함

**2) 폐기 원인에 따른 활용 방안 제안**

폐기된 도서가 도서의 내용, 물리적 상태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폐기됐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함

〈표 12〉 폐기 원인에 따른 활용방안 제안

구분	폐기 원인	활용방안					
		기관 단체 기증	개인 배부	개인 교환	개인 판매	창작 활동 활용 <sup>21)</sup>	폐지로 매각
1	이용가치 상실(불용) <sup>22)</sup>	○	○	○	○	○	○
2	복본 또는 내용 중복	○	○	○	○	○	○
3	개정판 발간	.	○	○	.	○	○
4	전집, 총서에서 일부가 빠진 결본	○	○	○	○	○	○
5	훼손, 파손, 오손	활용 불가		△*		○	
6	(단기)보존기간 만료	○	○	○	○	○	○
7	대체 가능 자료 확보	○	○	○	○	○	○
8	시사성 결여로 가치 상실	.	○	○	.	○	○
9	최소성 없는 자료	.	○	○	.	○	○
10	맞춤법이 맞지 않는 자료	.	○	○	.	○	○
11	20년 지난 자료 중 계속 보존 불필요한 자료	.	○	○	.	○	○
12	미회수된 자료	활용 불가					
13	장서점검 중 미확인	활용 불가					

\* 폐기도서 상태에 따라서 창작 활동에 활용 고려

서울대표도서관의 자료 폐기 기준을 근거로 삼아 각각의 원인에 따른 활용 방안을 제안함

**7. 발제문**

- 1) 도서관의 폐기도서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시나요?
- 2) 집 주변 공공도서관에서 폐기도서 나눔 행사를 한다고 할 때, 어떤 종류의 책을 살펴보고 싶으신가요?
- 3) 논문에서 언급된 것 외에 폐기도서를 활용할 다른 방법에 대해 논해봅시다.